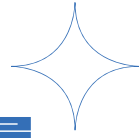


방송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모든 기술인이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김승준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KOBETA) 회장

2025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전국 각지에서 방송기술의 발전과 방송 현장의 안정화를 위해 애쓰시는 모든 기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24년은 우리 연합회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대한민국 방송의 기술적 발전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방송기술은 지속해서 진일보하며, 미래로 나아가는 발판을 다질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새해에는 국내외 모든 일이 안정화되고, 더욱 미래지향적인 일들이 많아지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연합회는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혁신하며, 대한민국 방송기술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겠습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뉴미디어 기술, 인공지능(AI) 기술 등 미래 방송을 선도할 핵심 기술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를 이끌어 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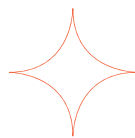
무엇보다 방송기술인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더욱 힘쓰겠습니다. 방송기술은 단순히 기계를 다루는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눈과 귀를 통해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을 전달하며 감동을 선사하는 창조적이고 숭고한 작업입니다. 여러분의 땀과 열정이 곧 대한민국 방송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그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연합회는 기술인들의 권익을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고, 기술인의 역할과 가치를 더 높이는 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이 방송기술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연합회와 모든 기술인이 함께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해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변함없는 열정과 헌신으로 빛나는 방송기술인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질 『방송과기술』



서진수
월간 방송과기술
편집장

『방송과기술』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편집장 서진수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안녕’의 의미가 새삼스럽게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지난 2024년은 방송·언론계뿐 아니라 전 국민에게 많이 힘들었던 시간으로 기억될 듯합니다.

그렇게 한 해가 마무리되었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지난 한 해는 방송과 미디어 산업에 있어 큰 변화와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콘텐츠 소비 패턴이 다변화되면서 우리 산업은 전환점에 서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특히 AI로 대표되는 신기술이 방송 제작과 서비스 전반에 깊숙이 스며들며 새로운 가능성과 고민을 함께 안겨주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월간 『방송과기술』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 방송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현업 전문가의 생생한 경험과 통찰, 최신 기술 동향, 그리고 우리 산업의 발전 방향을 꾸준히 탐구하며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습니다.

2025년은 한층 더 중요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글로벌 미디어 환경은 더욱 경쟁적으로 변하고, 기술의 발전 또한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이에 『방송과기술』은 앞으로도 기술 중심의 트렌드뿐 아니라 살아가는 우리의 다양한 이야기로 채워질 것입니다.

전문적이지만 쉽게 다가가기 위한 내용을 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각 회원사에서 전해지는 현장의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담아보겠습니다.

언제나 『방송과기술』을 아껴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특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회원사 편집위원분들과 집필진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과 좋은 여정이 되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항상 ‘안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